

# 올 출판계 트렌드 키워드 'P.E.A.C.E'

### 인터파크, 사회 이슈 등 통해 선정 예스24도 '생활밀착에세이' 등 뽑아

'P.E.A.C.E', '나를 위로하는 귀여운 존재들', '생활밀착에세이', '북한이 궁금해' 등...

2018년 출판계 트렌드 키워드들이다. 책의 해를 맞아 어느 해보다 도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출판계 키워드 또한 주목을 받았다.

인터파크는 도서 전문 MD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와 도서 판매 자료(지난 11월까지)를 통해 올해 키워드로 'P.E.A.C.E'를 선정했다. 예스24 또한 지난 11월까지 베스트셀러 분석 및 도서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나를 위로하는 귀여운 존재들', '생활밀착에세이', '북한이 궁금해' 등을 키워드로 뽑았다.

'P.E.A.C.E'는 'Premium Book' (리커버 프리미엄북 인기), 'Essay' (에세이 전성시대), 'Academic' (인문학 열풍), 'Cultural Expense'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Equality' (평등한 관계 추구)의 앞글자를 의미한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올 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국내외 정세가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한반도에 큰 전환이 왔다. 각박한 현실에서 순간순간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힐링',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가 출판계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Premium Book'은 리커버 프리미엄북 인기를 대변한다. 읽는 재미를 넘어 소장하고 싶은 가치를 지닌

Premium Book(리커버 프리미엄북)  
Essay(에세이 전성시대)  
Academic(인문학 열풍)  
Cultural Expense(문화비 소득공제)  
Equality(평등한 관계 추구)

스페셜 에디션 북이나 리커버북이 출판계 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책 표지 디자인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출판사들이 색다른 각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테디셀러나 인기 도서를 새로운 디자인과 구성으로 선보이는 이유다.

줄리언 반스의 대표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영국 대표 작가답게 영국 품종인 웰시코기 캐릭터 무늬를 일러 출간했다. '소확행' 트렌드에 맞춰 정글 에디션으로 출간한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역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Essay' 전성시대였다.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 에세이가 30~40대 여성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필두로 '모든 순간이 너였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 에세이 도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인문학 열풍도 빼놓을 수 없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자리한다.

지난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되고 근로 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Cultural Expense'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문화소비를 촉진하고 출판공연산업 활성화도 기하겠다는 의도와 연계된다.

'Equality'는 상하, 갑을, 남녀 관계등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의미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듯 부당한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전하는 도서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이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예스 24는 올해는 책의 해를 맞아 도서 장려 움직임에 힘입어 책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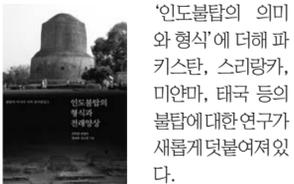
아울러 독자들은 '곰돌이 푸'를 비롯한 추억 속 귀여운 캐릭터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위로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월트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의 명대사와 행복의 메시지를 엮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독자들의 폭발적 공감을 얻으며 올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또한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의 개봉이 맞물리며 문화계 전반에 '곰돌이 열풍'이 불었다.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 올해에만 '별강머리 앤 (별강머리 앤이 하는 말)', '보노보노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전하는 말)', '엘리스 (엘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 등 10여 종의 에세이가 출간됐다.

또한 올해는 에세이 전성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골든 아워' 등 다수의 책들이 출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불탑 변화과정 조명 천득염 전남대 교수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펴내

불교는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종교 가운데 하나다. 기원전 5세기 경 인도에서 발생해 스리랑카로 전래돼 소승불교의 맥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372년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했으며 일본에 불교문화 전했다. 불교는 지금까지도 사상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우리 민족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자는 인도에서 초기불탑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중점을 두면서 간단히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명했다.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가 '인도 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심미안)을 펴냈다.

지금까지 '불탑의 발생과 전래 그리고 변모 양상' 주제로 불탑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온 저자는 이번에는 인도 불탑에 초점을 맞췄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이라 할 수 있는 바르후트불탑 유구를 조사하고, 인도의 남동부 안드라 지역의 나가르주나콘다와 아미리바티에 대해서도 살폈다. 또한 미얀마를 비롯 아이유타, 수코타이 등 태국의 지역을 답사하며 실재를 파악했다.

이번 책은 '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 양상' 시리즈 마지막 책으로 불탑의 형성 과정과 뿌리에 대한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천 교수는 "오지를 답사해 정리하고 역사는 과정에서 김준오, 최정미, 허지혜, 염승훈,곽우진, 김소영 연구원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저자는 부처의 흔적을 찾아 수년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등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책에는 지난 2013년에 출간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도 불탑.

## 광주시 문화예술상 문학부문 개선 목소리 높아

### "운영위 구성·불합리한 수상자 공모 방식 등 바꿔야"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예총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문화예술상 문학 분야가 부실한 조례, 불명확한 운영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수상자 공모 방식 등으로 문단 안팎의 반목을 사고 있다.

특히 상금도 없는 문학상을 두고 해마다 벌어지는 이진투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비롯한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년간 문학상 부문 운영과 심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작가 A씨는 "문학 부문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나뉘먹기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의 수상자 요건을 보면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은 시, 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돼 있다. 이리다 보니 박용철문학상과 김현승문학상에서 시인이 아닌 수필가나 시조시인이 선정되기도 한다. 또한 '광주시문화예술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문인 또는 출향 인사 중 광주정신과 영향을 알리는 데 기여한 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상자를 선정하는 문학상운영위원회 운영이다.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일정한 기간 공모를 해 각 부문별 7명씩 21명을 선정한다. 이후 공개모집 지원서를 내게 돼 있는데 이

러나 '셀프 추천'이다.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까지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셀프 추천하는 방식은 객관적이지 않은데다 '뭇빛이 답합을 하면 수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지난해 모 문학상 부문에서는 두 명의 문인이 선정되는 곡절을 겪었다. 문단의 관계자는 "지난해 문학적으로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문인이 투표를 했으면 탈락할 뻔 했다. 문학성과 지명도가 떨어진 문인과 경합이 돼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공동수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총 관계자는 "문학상 관련 매년 잡음이 있어서 올해는 위탁사업(보조사업자)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이 예총이어서 참여

대한 권유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문학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면면을 보면 문화수도에 영향을 맞는 문학계 인사들이 포함됐는지 의문이다. 다형과 용아, 정소파 이름에 비춰 문학적으로 명망있는 위원들이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 황당한 것은 수상후보자 공모 방식이다. 각 분야에 후보로 오르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문학상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문인도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수상 자격이 없다. 더욱이 문학과는 관련 없는 각급 기관장 등의 추천 규정을 두고 문단 안팎의 뒷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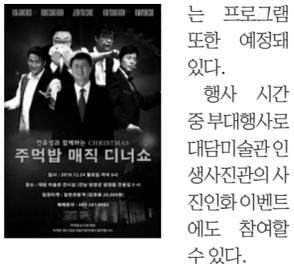
문화계 인사는 "문학상 선정 방식과 조례 변경을 해야 하고 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유성과 함께 크리스마스 주먹밥 매직 디너 즐겨요

### 오늘 담양 대담미술관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연시의 아쉬움을 달래줄 '전유성과 함께하는 CHRISTMAS 주먹밥 매직 디너'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24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관람객과의 커뮤니티, 주먹밥디너쇼, 매직쇼, 캠프파이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담미술관 전시실, 체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먹밥과 다과 등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대담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1-381-0082.

6시부터 주먹밥디너쇼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람객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화합의 시간을 보내고 7시부터는 전유성씨의 진행으로 매직쇼가 열린다. 매직쇼에는 김정우, 홍성훈, 김영훈, 김현수 총 4명의 마술사가 출연해 화려한 매직쇼를 펼치며 즉석에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구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콘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